

# 1970~1980년대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감행된 미제의 반쏘, 반사회주의책동

민영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미제의 우두머리들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옹호자〉로 자처하면서 사회주의적민주주의에 대한 비방중상과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반공소동에 그 어느때보다도 열을 올리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인권옹호〉를 부르짖으면서 사회주의나라들을 공격하는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것과 같이 철면피하고 가소로운 행위입니다.》(《김일성전집》 제65권 409페이지)

지난 시기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광란적으로 감행된 미제의 반쏘, 반사회주의적책동과 그 반동성을 폭로하는것은 현시기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미제의 《인권옹호》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글에서는 1970~1980년대 미제의 《인권》정책과 그 간판밑에 쏘련을 대상으로 감행한 미제의 반사회주의적책동에 대하여 파헤쳐보려고 한다.

미제는 1970년대 후반기부터 《인권문제》를 떠들며 그것을 미국의 중요한 정책으로 들고나왔다.

미제가 이 시기 《인권옹호》의 간판을 들고나오게 된것은 사회주의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고 사회주의의 영향력을 막아보려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어있었다.

미제의 양면정책에 기초하고있는 《인권옹호》, 《인권외교》는 1976년에 카터가 미국대통령후보로 출마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으며 레간시기를 거쳐 부쉬1세집권시기로 이어졌다.

카터는 1976년 9월 8일 미국유대인전국대회에서 한 연설을 비롯한 여러차례의 선거유세연설에서 《인권존중》은 자기의 당선후의 기본정책으로 될것이라고 떠벌이었다. 카터는 대외적으로는 《인권존중》에 기초하여 국가관계를 발전시키며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국가》들에는 《원조》를 주지 않을것이라고 력설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안에서 백인과 흑인사이의 차별을 완전히 없앴으로써 《인권존중의 모범》을 보일것이라고 지껄었다.

카터의 기만적인 《인권존중》에 유혹된 미국의 흑인선거자들의 94%가 그의 대통령당선에 지지표를 던졌다. 이렇게 대통령감투를 뒤집어쓴 카터는 1977년 2월 20일 텔레비존방송연설에서 《미국의 정책은 인권존중에 기초》를 두고있으며 《인권존중과 관련하여서는 내정간섭이란 있을수 없다.》라는 강도적론리를 들고나왔으며 자기의 이러한 주장을 대통령지령 28호를 통하여 정식 국가정책으로 선포하였다.

카터의 후임으로 미국대통령자리에 들어앉은 레간 역시 힘의 정책과 함께 《인권외교》를 들고나왔다.

레간은 1981년 11월 4일 《인권백서》라는것을 발표하고 여기에서 《인권은 미국외교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인권을 침해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우방국이라도 제재를 가하며 국제금융기구의 지원도 반대할것이라고 떠벌여댔다. 지어 레간은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과의 국가관계개선은 그들이 자국내 인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얼마나 보장하는가에 달려있다고까지 췌쳤다. 한편 레간은 미국무성에 내왔던 인권국을 폐지하겠다고 하던 종전의 태도를 일변하여 인권국을 더욱 강화하고 그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공화당행정부에 있어서

인권문제는 모든 외교정책부문에서 중요시되고있다.》라고 공식성명하였다.

레간다음으로 미국대통령자리에 오른 부쉬도 《평화적이행전략》의 한 고리로 사회주의나라들에서의 《인권보장》에 대하여 떠들어댔다.

미제는 이러한 《인권》정책에 기초하여 《인권유린》소동의 주되는 화살을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 특히 소련에 돌리었다.

1970-1980년대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감행된 미제의 반쏘, 반사회주의책동은 무엇보다먼저 《인권문제》를 구실로 이 나라의 사회주의제도를 악랄하게 비방중상하면서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한것이다.

미제는 어용선전수단들을 동원하여 소련에서 있지도 않는 《인권유린》을 꾸며대면서 마치도 이 나라에서 사상과 리념의 자유, 이주와 거주의 자유, 출판물의 자유로운 보급활동, 종교활동의 자유와 권리가 말살되고있는듯이 떠들어댔다. 그 론거로 소련에 있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에로의 이주문제, 반동적인 서방출판물에 대한 검열통제문제 등을 들고 나오면서 소련에서 서방의 《기준》을 모방하도록 압력을 가하였으며 이것을 《원조》와 《협력》의 조건부로 내세웠다.

카터는 집권하자마자 소련에서의 《인권문제》를 강하게 들고나오면서 반쏘책동에 적극 매달렸다. 그는 1978년 5월 18일 소련이 반혁명분자인 오를로브를 유죄판결한데 대하여 국제적으로 설정된 인권기준에 대한 위반이라고 비난하면서 오를로브에 대한 징벌에 그 무슨 《유감》을 표시하는 국무성성명을 발표하게 하였으며 그자의 석방을 호소하는 미국회하원의 결의안이라는것을 채택하는 놀음을 벌리었다.

미제는 1980년대에 소련이 반쏘분자인 짜하로브를 수도에서 추방한 사건을 《인권유린》행위로 《규탄》하면서 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줄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련측에 강요하였다. 짜하로브는 일명 《수소탄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소련의 이름있는 핵물리학자였으나 후에 서방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반쏘, 반사회주의책동을 감행해온 인물이다. 이자는 1960년대에 벌써 반쏘적인 론문을 발표하고 《인권옹호활동가》, 《반체제활동가》로 자처하면서 반사회주의활동을 적극 벌려 체국주의자들의 환심을 샀다. 소련정부는 1980년에 짜하로브부부가 반혁명적활동에 관여했다는 리유로 고리끼시로 추방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이것을 《인권탄압》이라고 우겨대며 소련에 압력을 가하여 끝내 고르바초브로 하여금 짜하로브의 처 엘레나를 《병치료》로 미국에 입국시키게 하였으며 1987년에는 짜하로브의 《류형살이》도 해제시켜주게 하였다. 그리고 미국회하원으로 하여금 워싱턴주재 소련대사관이 자리잡고있는 거리이름을 《짜하로브거리》로 개칭할데 대한 결의를 채택케 하였으며 유럽의회에 압력을 가하여 《사상의 자유를 위한 유럽의회 짜하로브상》이라는것을 제정하게 하고 그것을 인권분야에서 《공로가 있는 인물》들에게 수여한다는 도발적결의를 조작하도록 하는 등 반쏘, 반공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었다.

미제는 소련의 반혁명분자들이 《헬싱키선언리행감시그루빠》라는 비법적인 조직을 형성하고 소련에서의 《정치범탄압》과 《인권유린》이라는 날조된 문건들을 서방에 보낸 사실을 저들의 반쏘, 반공감빠니야에 적극 리용하였다.

이처럼 미제는 소련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반대하고 사회안에서 무질서와 무법천지를 조성하여 사회주의의 영상을 흐리게 하며 사회주의를 전복하기 위하여 《인권》과

《민주주의》간판을 교활하게 리용하였다.

1970-1980년대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감행된 미제의 반쏘, 반사회주의책동은 다음으로 반혁명분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을 적극 부추겨주어 그들을 사회주의제도전복의 앞장에 내세운것이다.

카터는 1977년 2월 27일 소련에서 교화중에 있던 반혁명분자인 물리학자 싸하로브에게 《미국의 국민과 정부는 인권존중정책을 미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국외에서도 추진시킨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데 이어 미국에 온 소련의 반혁명분자인 부콥스끼를 1977년 3월 5일 백악관에 불러들여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정부의 관심은 영구적인것》이라고 하면서 그의 반혁명적행위를 적극 찬양하여주었다.

1988년 5월말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쏘미수뇌자회담기간에 레간은 오만무례하게도 소련에서 《이단자》들과 만나야만 자기 집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면서 고르바췌브에게 강요하여 자기의 불순한 기도를 실현하였다. 그는 모스크바의 한 수도원을 방문하여 《인권》과 《종교의 자유》를 설교하였으며 그날 저녁 미국대사관 응접실에서 수십명의 불순분자들을 만나 그들을 반쏘활동으로 적극 부추기였다. 그는 자기가 이 《이단자》들에게 힘을 주는 어떤 일을 할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모스크바에 왔다고 하면서 《우리가 외교적경로를 통하여 인권을 요구하고있는동안 당신들은 당신들의 직업과 가정과 그리고 자신의 모든것의 위험을 무릅쓰고 매일과 같이 여러해동안 밤낮없이 당신들의 삶을 위해 노력하고있다.》라고 말하였다.

미제의 이러한 책동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얻은 소련의 반혁명분자들은 공산당과 사회주의제도를 헐뜯고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불신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실례로 미제의 지지에 의기양양해진 싸하로브는 《개편》과 《공개성》을 부르짖으면서 소련대의원으로까지 둔갑하였다. 이자는 제2차 소련인민대의원대회에 참가하여 소련공산당의 령도적지위와 역할을 법화한 소련헌법 제6조를 폐기할것을 제기하고 자기의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전국적인 파업을 일으키겠다고 위협해나서는 등 소련공산당을 야당의 처지로 전락시키는데서 악질적인 역할을 놀았다.

1970-1980년대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감행된 미제의 반쏘, 반사회주의책동은 다음으로 배신적인 집권자들을 《개혁》, 《개방》으로 적극 유도한것이다.

미제는 현대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여나선 친서방적인 고르바췌브가 소련의 최고권력자로 등장하자 그의 《개혁》, 《개편》정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으며 그를 극구 찬양하기도 하고 또 위협도 하고 흥정도 하면서 《인권》과 《민주주의》도입문제 등에서 각방으로 압력을 가하였다.

1988년 5월말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쏘미수뇌자회담시 레간은 고르바췌브에게 인권문제를 들고나오면서 미국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있는 14명의 《소련출국희망자》들의 명단을 제기하였으며 그들의 《출국을 보장》할것과 《이주의 자유》를 더 많이 제공할것을 요구하였다. 이 기간 고르바췌브의 묵인밑에 모스크바에 있는 다닐로브수도원을 참관하였으며 《이단자》들까지 만난 레간은 이에 대하여 고르바췌브에게 《소련인민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호의와 존경심을 확증했다.》라고 공공연히 떠들어댔으며 《종교의 자유》시대를 열어놓을것을 강요하였다.

레간다음에 미국대통령으로 된 부쉬도 고르바췌브의 《개편》정책을 《찬양》하면서 쏘

련을 《개방된 사회》로 《진화》시키기 위한 《방략》을 내놓았다. 그는 거기에서 《정치적다원주의를 실현하며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는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부쉬는 미쏘관계의 전제조건으로 종교와 이주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며 《민주주의》를 더욱 확대할것을 쏘련측에 강요해나섰다. 고르바초브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쏘련출국희망자》들이 마음대로 쏘련을 떠날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종교의 자유도 보장할것을 약속하였다.

이처럼 미제국주의자들이 광란적으로 벌린 쏘련에 대한 《인권》소동은 이 나라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한 추악한 반사회주의적소동이였다.

사실에 있어서 70여년간 존재하면서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다져온 쏘련은 미제를 비롯한 반동세력들의 이러한 반사회주의책동에 의하여 하루아침에 물먹은 담벽처럼 붕괴되였다.

그러나 《인권문제》를 가지고 사회주의나라들을 와해시키려는 미제의 무모한 모략책동은 사회주의위업의 흉악한 원쑤로서의 자기의 더러운 정체만을 날날이 드러내놓았을뿐이였다.

지구상에서 사회적불평등이 가장 심하고 인민들에 대한 억압과 인권유린이 가장 혹독한 나라는 바로 미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가 《인권옹호》를 부르짖으면서 사회주의나라들을 공격하는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것과 같은 철면피하고 가소로운 행위이다. 그것은 인권폐허지대에서 살고있는 미국의 수억만 근로자들의 이목을 판데로 돌리는 한편 반공, 반사회주의사상을 고취하여 사회주의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켜보려는 기도에서 출발한것이다.

미제는 오늘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강성국가건설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우리 공화국을 허물어보려고 《인권》소동을 비롯한 갖은 발악적책동을 다하고있다.

우리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인권옹호》책동의 반동성을 똑똑히 알고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